



에쓰오일 새해 경영 화두 2050년 '넷제로' 겨냥 수소경제 가속화

에쓰오일은 새해를 맞아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탄소경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중장기 투자 로드맵 관련 중장기 전략 수립을 본격화한다.

에쓰오일은 신사업 분야로 수소 생산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소 산업 전반에 걸친 사업화를 모색 중이다.

에쓰오일은 지난 10월 초 정부의 '수소선도 국가 비전' 발표에서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규모 청정수소 프로젝트 참여를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삼성물산, 남부발전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쓰오일은 대주주인 사우디아람코와 협력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한 블루 암모니아를 국내에 공급하는 등 해외 청정 암모니아 생산 원료 확보, 도입, 수소 추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최근에는 삼성물산과 파트너십 협약을 맺어 국내 발전 회사에 청정 수소와 암모니아 혼소(mixed firing) 연료를 공급한다.

에쓰오일은 자체적으로도 대규모 수소 수요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의 공장 연료를 수소 연료로 전환하고, 중질유 분해·탈황 등의 생산공정에 청정수소를 투입할 계획이다.

수소 연료전지 등 미래 성장 신사업 진출

에쓰오일은 올해 초 차세대 연료전지 벤처기업인 에프씨아이(FCI) 지분 20%를 확보했다. 에프씨아이는 40여 건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SOFC)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27년까지 최대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100MW 이상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하고, 그린 수소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 중이다.

에쓰오일이 삼성물산과 협약을 맺은 것도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생산시설, 글



1 에쓰오일 울산공장의 신규 석유화학 복합시설 2 에쓰오일 본사 사옥 3 에쓰오일 올레핀 하류 시설

로벌 네트워크 등 양사가 축적한 운영 노하우와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수소 및 바이오 연료 사업의 공동 개발과 운영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해외 청정 암모니아와 수소의 도입, 유통 사업도 모색한다.

또 서울 시내에 복합 수소충전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버스·트럭의 수소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Korea Hydrogen Energy Network)에 참여했다.

에쓰오일은 글로벌 탄소중립 강화 추세에 발맞춰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있다. 2019년부터 미얀마에 고효율 쿡 스토브를 무상 보급해 연간 1만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체인 '글로벌리엔텍'에 투자해 방글라데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연간 1만3천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도 성과를 내고 있다. 에쓰오일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인 동광화학과 탄산 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벤처기업 협력으로 탄소중립·신성장 동력 확충

에쓰오일은 미래 경영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적극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정유, 유통, 석유화학 등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와 회사의 신성장 동

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 큰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고성능 아스팔트 생산용 유허개질제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인 범준이엔씨(E&C)에 지분을 투자했다. 이는 원프레딕트(AI 기반 산업 설비 예방진단 솔루션), 아이피아이테크(폴리이미드 필름), 리베스트(플렉서블 배터리), 글로벌리엔텍(CDM사업)에 이어 다섯 번째였다.

또 에쓰오일은 지난 11월 범준E&C, 포스코건설, 태명실업과 함께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협력 범위를 넓혔다.

이 투자로 에쓰오일은 부산물인 유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수요처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허는 비료나 살충제 제조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고성능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제조용으로 사용하면 유허 시장이 커지고 부가가치가 커진다.

에쓰오일은 성공적인 벤처 투자를 위해 업계와 활발히 소통하려 노력한다. 추가 투자 대상 영역에 대한 지속해서 검토 중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스마트 팩토리처럼 생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를 비롯해 소재, 배터리 사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탄소 저감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분야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와 협업을 모색해 회사가 성장할 기반을 계속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❶

친환경 에너지 화학의 미래-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으로 에스-오일이 열어갑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투자!

석유를 넘어 화학까지 한발 앞선 변화!

가능성을 넓히는 신사업 개척!

에스-오일의 미래 로드맵, 비전 2030

창의적인 생각과 도전으로

경쟁력을 높이며

미래보다 먼저 변화합니다.



탄소배출 최소화! 친환경 투자

2030년까지 친환경 투자 로드맵을 완성한 에스-오일, 탄소 저감시설을 연이어 완공하며 환경친화기업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경쟁력! 사힌 프로젝트

대규모 투자로 진행되는 첨단 석유화학 복합시설, 사힌 프로젝트, 에스-오일이 정유에서 화학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 신사업 개척

수소, 연료전지, 리사이클링 등 에스-오일의 다양한 신사업 투자, 한발 앞선 스타트업 정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